6월 모의평가 대비 자작 문법 모의고사

1.<보기>의 ⓐ와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형태소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말의 단위이다. 형태소는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의미의 성격에 따라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뉜다.

5.ⓐ에서 관형사 ‘맨’과 ⓑ에서 의존명사 ‘뿐’은 모두 의존 형태소에 해당한다.

4.ⓑ에서 ‘그녀를’의 ‘를’과 ‘왔을’의 ‘-을’은 모두 형식 형태소이지만 문법적인 의미는 다르다.

3.ⓑ에서 ‘만나러’의 ‘만나-‘는 실질 형태소에, ‘-러’는 형식 형태소에 해당한다.

2.ⓐ에서 합성어 ‘올라갔다’를 구성하는 5개의 형태소 중 실질 형태소는 2개이다.

ⓐ친구는 학교의 맨 위로 올라갔다.

ⓑ단지 그녀를 만나러 왔을 뿐입니다.

1.ⓐ에서 체언 ‘친구’,’학교’,’위’는 자립형태소에 해당한다.

 2.<보기1>의 ⓐ~ⓒ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2>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1>

3.<보기>의ⓐ~ⓔ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

1. ㄷ,ㅁ ㄴ,ㄹ ㄱ
2. ㄷ,ㅁ ㄹ ㄱ,ㄴ
3. ㄴ,ㄷ ㄹ,ㅁ ㄱ
4. ㄴ,ㅁ ㄷ,ㄹ ㄱ

ⓒ

1. ㄱ ㄴ,ㄷ ㄹ,ㅁ

ⓑ

ⓐ

ㅁ.그는 길거리에 떨어진 동전을 주워 주머니에 넣엇다.

ㄹ.민희는 열심히 노력하여 성공을 이루었다.

ㄷ.철수는 눈물이 흘러 앞을 볼 수 없었다.

ㄴ.봄이 와서 숲이 점점 푸르러 간다.

ㄱ.하늘이 매우 파래서 아름답다.

.

<보기2>

동사와 형용사가 활용을 할 때 어간과 어미의 형태가 바뀌지 않거나 바뀌더라도 그 변화가 규칙적이면 규칙 활용이라하고, 어간과 어미의 형태 변화가 규칙적이지 않으면 불규칙 활용이라 한다. 이때 불규칙 활용은 ⓐ어간이 바뀌는 경우. ⓑ어미가 바뀌는 경우,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민수가 철수와 만났음이 밝혀졌다.

ⓑ영희는 형이 어제 산 책을 읽었다.

ⓒ나는 숙희가 밥을 먹은 사실을 몰랐다.

ⓔ농부는 식물이 잘 자라도록 물을 주었다.

ⓓ아침에 사람들은 직장으로 출근하기에 바쁘다.

5. ⓓ와 ⓔ의 안긴문장은 안은문장에서 모두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

4. ⓒ의 안긴문장의 주어는 안은문장의 주어와 다르지만, ⓓ의 안긴문장의 주어는 안은문장의 주어와 같다.

3. ⓑ의 안긴문장 속에는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지만, ⓒ의 안긴문장 속에는 생략된 문장 성분이 없다.

2. ⓐ의 안은문장에는 명사절이 안겨 있지만, ⓓ의 안은문장에는 부사절이 안겨 있다.

1. ⓐ의 안긴문장 속에는 부사어가 있지만, ⓒ의 안긴문장 속에는 목적어가 있다.

4.<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5. ㉤: ‘동수를’은 홑문장의 기본 구조를 이루는 문장 성분 중 하나인 목적어이고, ‘첫째’는 홑문장의 기본 구조에 덧붙은 관형어이다.

4. ㉣: ‘시장에서’는 홑문장의 기본 구조를 이루는 문장 성분 중 하나인 필수적 부사어이고, ‘드디어’는 생략 가능한 부사어이다.

3. ㉢: ‘학교에서’는 홑문장의 기본 구조를 이루는 문장 성분 중 하나인 주어이고, ‘오늘’은 홑문장의 기본 구조에 덧붙은 부사어이다.

2. ㉡: ‘성인이’는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보어이므로 문장에서 생략될 수 없지만, 부사어 ‘벌써’는 생략될 수 있다.

1. ㉠: ‘성실하게’는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부사어이므로 문장에서 생략될 수 없지만, 부사어 ‘매우’는 생략될 수 있다.

㉣오늘 시장에서 드디어 물가의 가격이 올랐다.

㉤그는 동수를 첫째 사위로 삼았다.

㉡철수는 벌써 성인이 되었다.

㉢오늘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나눠주었다.

㉠영수는 매우 성실하게 생겼다.

5.<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3점］

<보기>

5. ㉤의 ‘다치신’과 ‘흘리셨다’에서 선어말 어미를 활용하여 주체 높임을 표현하였다.

4. ㉣의 ‘피곤하신지’와 ‘주무신다’에서 종결 어미를 활용하여 상대 높임을 표현하였다.

3. ㉢의 ‘선생님께서’와 ‘아버지께’에서 조사를 활용하여 객체 높임을 표헌하였다.

2. ㉡의 ‘여쭈어’와 ‘모시겠습니다’에서 특수 어휘를 활용하여 상대 높임을 표현하였다.

1. ㉠의 ‘계시던’과 ‘나오셨다’에서 선어말 어미를 활용하여 주체 높임을 표현하였다.

㉤아버지는 허리를 다치신 할아버지를 뵙고 슬퍼하셨다.

㉣어머니께서는 피곤하신지 손님이 가자마자 주무신다.

㉢선생님께서 이 선물을 어머니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방에만 계시던 할아버지께서 거실로 나오셨다.

㉡불편한 점을 여쭈어 보며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국어의 높임법은 듣는 이를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상대 높임법과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 서술의 객체 즉,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이 있다. 높임법은 종결어미, 선어말 어미, 조사, 특수 어휘 등을 통해 실현된다.